

라미와 리넨의 특징

라미(Ramie, 저마)는 섬유는 굵고 길다. 천연섬유 중에서 가장 강력(양모의 4배, 면의 2배)이 크며, 색상은 하얗고 견과 같은 촉촉한 광택을 갖는다. 흡수성, 방습성, 발산성, 통기성이 우수하다. 상쾌한 청량감이 있다. 주요 용도로는 블라우스, 수트, 재킷 등의 의류용, 침장용, 자재용으로 사용된다.

리넨(Linen, 아마)은 섬유는 가늘고 짧다. 강력이 있고 색상은 아마색, 태는 소프트하고 부드럽다. 흡수성, 방습성, 통기성, 청량감이 우수하다. 주요 용도로는 블라우스, 수트, 재킷 등의 의류용, 침장용, 자재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여름패션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 소재이다. 마에는 가벼움, 상쾌함, 풍요로운 감 등이 있고 도회적이고 세련된 멋을 즐길 수 있다. 단 마에는 주름이 생기기 쉽다든가 까칠까칠하는 등 기분이 내키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공법으로는 액체 암모니아 가공법이 있다. 마에 면직물의 형태안정과 같은 가공을 한다. 이렇게 하여 성질을 바꾸어 주름이 생기기 어렵게 하고 줄어들기 어렵게 함과 동시에 섬유의 끝단이 둥글게 되기 때문에 피부촉감이 좋게 된다. 시험한 결과 여러 시간 앓은 상태에서 서의 주름은 통상의 마제품의 반 정도에서 1/3 정도에 머무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러한 주름도 서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복된다고 한다.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한 소재는 마 100%외에도 마의 비율이 높은 혼방면, 울 혼방, 폴리노직 혼방 등이 있다. 용도는 수트, 드레스, 블라우스, 셔츠, 재킷, 블루종, 슬랙스 등의 의복류 외에도 침장품이라든가 손수건도 있다. 이러한 소재는 종래의 것에 비하여 단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여성복은 리넨(아마)이 중심이다. 액체 암모니아 가공은 일본이 가장 활발하고, 미국,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마에는 라미(ramie)와 대마(hemp) 그리고 리넨(flax, linen)이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함께 묶어 마라고 부르고 있다. 라미는 저마라고 하며 유명한 한산 모시가 라미이다. 대마는 안동포가 유명하여 여름철 삼베 옷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리넨이라 함은 실이나 천의 상태로 된 아마를 말하고 실로 되기 전 상태의 아마를 플렉스라고 불러 구별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마라고 하면 리넨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라미와 대마를 의미하고 있으며, 리넨은 추운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라미나 대마는 더운 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된 마는 모시와 삼베인데 옷감으로 리넨을 수입하는 점에서 모두 마라고 한다. 리넨 만을 사용하는 구미에서는 리넨으로 두꺼운 옷, 얇은 옷 모두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모시나 삼베는 얇은 옷감(셔츠·블라우스 등), 리넨은 두꺼운 옷감(재킷·수트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된 플렉스를 사용하여 라미와 리넨의 복합물도 만들고 있어 새로운 맛의 옷감이 얻어지고 있다. 라미 세번수도 방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로 만든 옷감은 옛 풍취를 얻을 수 있으나 고가이다.